

2015년 7급공무원(지방직) 경제학 해설

권박사 교수님

1. 정답 1번

최근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당해 연도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나 경제 전반의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지진과 해일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2. 정답 2번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 균형은 장기 평균비용의 극소점에서 달성된다. 문제에 제시된 식을 가지고 이윤극대화 균형점에서 개별기업의 판매량은 10, 가격은 100이 됨을 알 수 있다.

시장수요함수에 이를 대입하면 시장 전체의 판매량은 900이 된다. 개별기업의 판매량이 10이고, 시장전체의 판매량이 900이므로 기업의 숫자는 90개가 된다.

3. 정답 3번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런데 전업주부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므로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정답 4번

공급의 가격탄력도는 공급곡선이 원점을 통과하면 우상향하는 직선이면 모든 점에서 “1”이 된다. 문제에서 제시된 공급곡선 3가지는 모두 원점을 통과하면서 우상향하는 직선이므로 공급의 가격탄력도는 모든 점에서 “1”이 된다.

5. 정답 4번

자가소비 농산물, 치안이나 국방과 같은 정부의 서비스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된 귀속임대료 3가지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에 계산되는 항목들이다.

6. 정답 3번(?)

확실성 증가와 위험프리미엄은 그동안 시험에서 많이 출제된 부분이다.

그런데 제시된 문제를 분석하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곤란하다. 문제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의 성공확률과 실패확률이 제시되지 않아서 정확한 계산이 힘들다.

7. 정답 3번

이 문제는 케인즈의 균형 국민소득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처음 출제되는 형태로 보인다.

$Y = C + I + G$ 에 주어진 수식들을 대입하면

$0.3 Y = -0.7tY + 50 + G$ 가 얻어진다.

여기에 $y = 300$, $T = G$ 를 대입한다.

$90t = 30$ 에서 $t = 1/3$ 이 얻어진다.

8. 정답 4번

비교우위이론에 입각해 조선과 해외열강의 비교우위를 분석하면 조선은 X재에, 해외열강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설문에는 이런 사항이 없으나 가장 근접하게 제시된 문항은 4번이 된다.

9. 정답 1번

산업 내 무역이론은 캠프의 규모의 경제이론, 린더의 대표수요 이론, 크루그먼의 국제 독점적 경쟁시장 이론 등이 있다.

10. 정답 2번

투자자가 투자를 행할 때 적용되는 준거 조건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수익일 경우에는 가장 위험도가 적은 안전한 투자대안을, 반면에 동일한 위험을 수반할 경우에는 가장 수익이 높은 투자대안을 선택한다.

투자이론에서 수익은 평균값을, 위험도는 분산이 나타낸다. 평균값이 클수록 수익이 높으며, 분산이 낮을수록 안전하다.

문제에서 수익이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분산도가 가장 낮은 투자대안을 선택하면 된다.

11. 정답 2번

이자율 평형이론에서 국내 이자율 = 해외 이자율 + 선물환율의 상승률 방정식이 성립한다. 문제에서 미국의 연간 이자율이 5%이고, 환율이 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이자율은 7%가 된다.

12. 정답 1번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되면 사람들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반드시 현금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현금은 은행에 예금하고 그 대신에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한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사용은 화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13. 정답 4번

풍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수입이 감소하는 풍년으로 산출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하락 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풍년으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때, 농산물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려면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커야한다.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도는 비탄력적이다.

14. 정답 4번

한계세율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5%로 동일하므로 비례적이다. 평균세율은 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소득세가 150만원으로 7.5%, 3,000만원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300만원으로 10%가 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소득세율이 늘어나므로 누진적이다.

15. 정답 1번

합리적 기대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다면 단기 필립스곡선도 수직선이 된다. 그러므로 실업률의 변동 없이 물가상승률을 낮출 수 있다. 단,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동시에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16. 정답 3번(?)

주어진 생산함수의 식을 가지고 등량곡선을 그리면 우하향하는 직선이 된다. 등량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두 생산요소는 완전대체 관계인 경우이다. 두 생산요소가 완전 대체관계인 경우 등량곡선과 등비선의 기울기가 동일하지 않으면 생산량 극대화 균형점에서 노동과 자본 어느 한 생산요만 투입해도 가능하다.

그런데 설문에서는 생산량 극대화 점이 아니라 이윤극대화로 표기되어 정답이 없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

17. 정답 2번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각 국의 1인당 생산성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A국의 1인당 국민소득 = $50z = 100$ 에서 $z = 2$ 가 된다.

B국의 1인당 국민소득 = $80z = 240$ 에서 $z = 3$ 이 된다.

그러므로 B국의 생산성은 A국 생산성의 1.5배가 된다.

18. 정답 2번

2013년 실질 GDP = $(10 \times 10\text{만원}) + (100 \times 1\text{만원}) = 200\text{만원}$

2014년 실질 GDP = $(10 \times 10\text{만원}) + (120 \times 1\text{만원}) = 220\text{만원}$

19. 정답 4번

이 문제는 재무관리에서 주로 출제되고 있다.

이표율 10%, 금리 10%인 3년 만기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000\text{원} \div 1.1) + (1,000 \div 1.1 \text{ 제공}) + (11,000 \div 1.1 \text{ 상승}) = 9,999\text{원}$$

이표율 8%, 금리 10%인 3년 만기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800\text{원} \div 1.1) + (800 \div 1.1 \text{ 제공}) + (10,800 \div 1.1 \text{ 상승}) = 9,502\text{원}$$

대개 채권가격은 이자율에 반비례 한다. 그리고 이표채권의 경우 이표율이 높을수록 채권의 가격은 상승한다.

20. 정답 1번

리카아도의 대등정리에 의하면 정부지출의 재원조달을 조세를 통해서 하든, 국채발행을 통해서 하든 그 효과가 동일하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확대 재정정책의 효과는 재원조달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국민소득의 증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물가만 상승시킨다는 것이다.